



이미지읽기 강좌교재 2

미술을 읽는 방법으로 사회적인 이미지를 읽는다

사회적 이미지를 읽는 법 1. 트라팔과 광장(Trafalgar Square)

정상적인 사회라면 모든 사회에는 사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물과 사람에 보는 이에게 일정한 이미지를 형성해주듯이 사회에도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 사회적 이미지는 그 사회의 오랜 전통과 관습 역사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선 오늘날의 좌표와 방향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시해 준다.

런던의 대표적인 상징인 트라팔과 광장에도 사회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다. 알려진 대로 런던은 서기 43년에 로마병사들이 진주에 병영을 만들며 런던니움(Londinium)이라 이름 붙인 것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도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기 용이한 동해안의 인근 프랑스 지역과 가까운 해안에서 강(테임즈 강)을 끼고 진입할 수 있는 관문으로 대도시로 성장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도 서기 후 약 십 수 세기 동안 사실상의 이민족의 식민지로 직접 간접 지배를 받아왔다.

이 영국의 제국주의를 건설하고 세계로 진출하게 된 것은 사실상 1805년 넬슨이 트라팔과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니 겨우 2백 년 전의 일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새로운 전통으로 형성하고 자국민에게 긍지와 자랑을 심어주기 위해 트라팔과 광장을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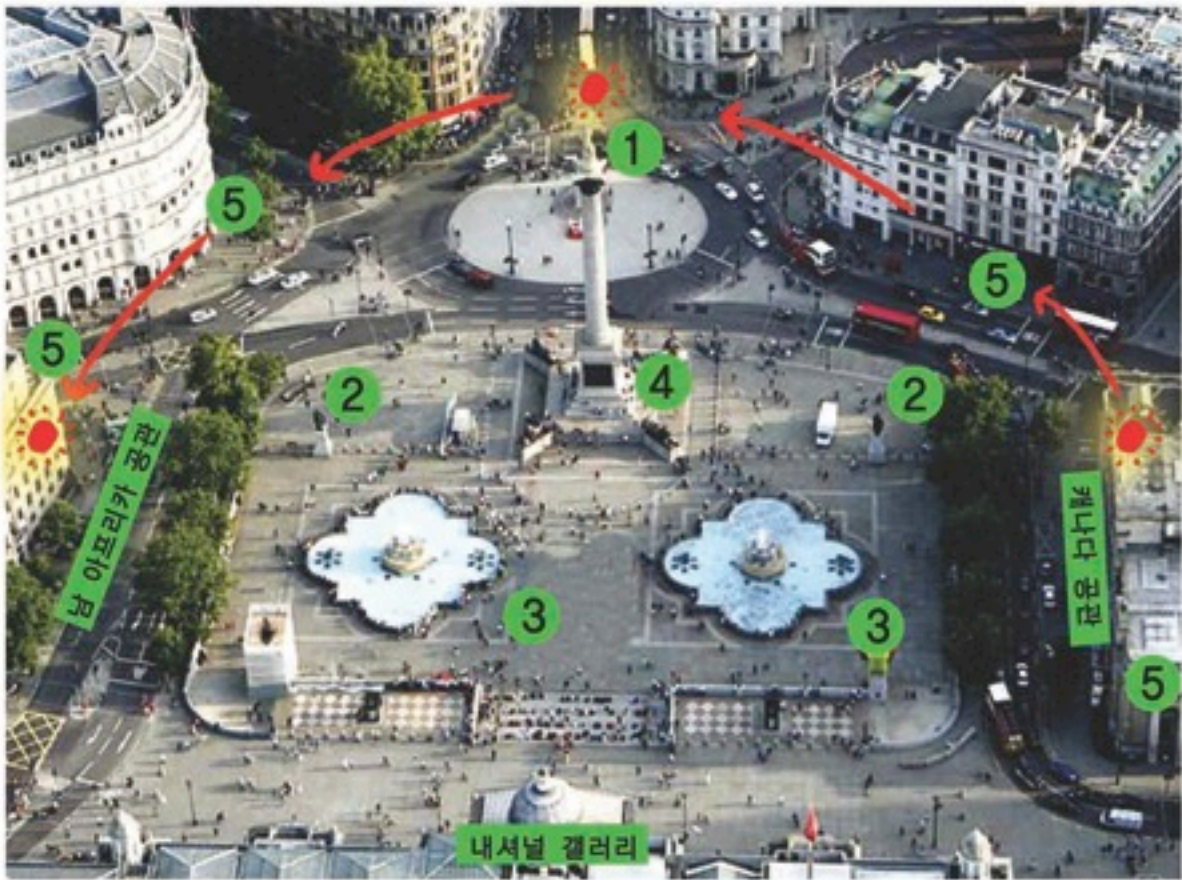
1812년에 건축가 존 내시(John Nash)에 의해 새로 개축되어 1830년에 트라팔과 광장이란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1838 에 바리(Sir Charles Barry)는 이 광장에 넬슨의 동상과 두 연못을 만들기로 건의하고 1843년에 넬슨 컬럼은 윌리엄(William Railton)에 의해 디자인 되어 세워졌다.

연못은 바리(Sir Charles Barry)에 의해 그리고 사자는 랜드시어에(Sir Edwin Landseer) 1867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라팔과 광장은 사실상 15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전에 이 광장은 근처에 있는 정부 청사 화이트 홀에 소속된 빈터였다. 이 빈터를 활용하여 영국의 건축가와 조각가들은 아주 치밀하게 사회적 이미지를 조성한다. 다음 그림을 보자.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RPIInstitute?ref=hl>

예를 들어 런던의 유명한
트라팔가 광장을 봐!



트라팔가 광장, 런던 Trafalgar Square

1. 중앙에 넬슨 장군이 우뚝 서 있고
2. 양 옆에는 식민지 개척에 공이 많은 두 사람
3. 대서양과 태평양을 상징하는 두 분수는 대양을 영국의 연못으로 만든 것을 상징.
4. 워털루 전투에서 이긴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부조 조각의 청동은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에서 적들에게 뺏은 대포를 녹여 만들어 영국의 위대성을 강조
5. 이 광장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점령한 나라의 대사관 건물들이 마치 대국에 인사를 하는 것처럼 둘러 쌓여 있지.



이 트라팔과 광장을 중심으로 넬슨 컬럼은 정면에 의사당과 정부 청사를 일직선으로 마주 보고있다. 그리고 넬슨의 컬럼 기둥에는 사면에 전투 장면이 새겨져 있고 밑에는 네 마리의 사자가 버티고 있다.

사자가 보호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사자와 부조용으로 사용한 동판은 적에게 뺏은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이다. 즉 트라팔과 해전에서 뺏은 스페인의 대포와 워터루 전투에서 뺏은 프랑스군의 대포로 만든 것들이다.

그리고 넬슨 밑에 두 개의 연꽃은 두 개의 대양을 상징한다. 넬슨은 세계의 해양을 제패하여 바다를 영국의 안마당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자국민과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상징이다.

트라팔과의 상징성과 사회적 이미지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광장의 중심에 서서 원편 끝을 보면 캐나다 관이 있고 옆에는 인근의 카라비안 바다의 영국 신민지인 나라들의 건물이 서있고 오른쪽 끝 편에는 영국의 서쪽에 맨 아래 식민지인 사우스 아프리카 관이 있다.

결국 넬슨을 중심으로 반 원형으로 동쪽에서 서 쪽 끝까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상징하는 나라들의 마치 부복하는 자세로 엮드려 있는 형국임을 볼 수 있다.



트라팔가 광장, 런던 Trafalgar Square

미술을 읽는 방법으로 사회적인 이미지를 읽는다

사회적 이미지를 읽는 법 2. '데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다리'

사회 집단은 이상적 희망, 집단의 욕망을 건축과 그 밖의 기념비, 조형물로 조성해 현재와 후세에게 이미지로 전달해 준다. 트라팔과 광장이 대영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해 주는 사회적 이미지로 조성되었음을 지난 주에 살펴보았다.

모든 형상 혹은 이미지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테임즈 강 동쪽의 밀뱅크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트 모던 주변으로 형성된 사회적 이미지를 살펴보자. 지금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었던 화력발전소 중의 한 곳이었다.

영국의 상징인 빨간 전화 박스를 디자인한 길버트 스코트(Gilbert Scott) 경에 의해 설계되었던 건물로 예전에는 세계 금융과 보험 언론의 심장부였던 '시티 런던'에 전력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이러한 의미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하다. 이 발전소는 영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런던의 심장부에 전력을 주어 불을 밝히고 동력을 공급하는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화력발전소가 공해를 생산하는 폐물로 다시 사라지게 되었다.

돈의 소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언론의 소통을 담당하는 언론기관이 자리 잡고 있던 이 '시티 런던'은 18세기에는 방직산업과 증기 기관이 그리고 다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기관 산업을 뒷받침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대처 수상 이후 기간 산업이 몰락한 후, '시티 런던'은 버려진 화력발전소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쇠락하다 다시 90년 대 이후 새롭게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버려진 화력발전소는 밀레니엄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곳이 서기 3천 년을 여는 밀레니엄을 기념하여 2000년 5월에 새로운 미술관으로 개관되었다. 전력을 생산하여 문명을 보급하던 발전소가 문화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예술의 전당으로 이렇게 바뀌며 해마다 5백여만 명이 방문해 개관 7년째 거의 3천 5백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 수치는 대영박물관의 관람객을 꺾히고 영국의 제일 많이 관람객이 찾는 명소로 부상했다. 이렇게 문화 예술을 보급하고 국민과 세계인의 미의식을 확장하는 문화적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문화 예술인과 정치인, 행정가의 치밀한 전략 전술이 뒷받침 되었다.

첫째는 모던 미술관을 건립해 테임즈 강을 중심으로 그 동안 낙후되었던 강동쪽의 번두리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지역간의 경제적인 균형을 이루게 한다.



바로 건너편은 런던의 핵이라 불리는 '시티 런던'으로 금융과 언론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예전의 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은 백여 년 전에 슬럼가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가 거지 부랑자 시절에 기숙하던 지역으로 묘사된 낙후 지역이었다.

둘째는 전통과 현대를 밀레니엄을 계기로 연결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적 전략이다.

실제로 화력발전소 맞은 편에는 세인트 폴 성당이 측면으로 서있다. 이 측면에 맞추어 데이트 모던의 측면으로 연결하는 밀레니엄 다리를 새로 건설해 전 밀레니엄(세인트 폴 성당)과 새 시대의 밀레니엄 (데이트 모던)을 연결해 하나의 사회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21세기에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이끌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현대 문화를 대영제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용하겠다는 문화적 전략이다.

세계의 금융의 심장부를 이제 신 창조산업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신 산업 전략의 야심 찬 기획으로 밀레니엄 다리를 건설하고 폐 발전소를 컨템포러리 아트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을 새로운 사회적인 이미지로 구축했다. 미술관은 이제 단순히 그림을 걸어 놓고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다. 문화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문화를 공급하는 공급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미적 수준을 동일화시키고 새로운 미감을 획득을 위한 문화 예술을 교육하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창조산업과 정보 산업이 선진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감성'은 이제 자본이 되었다. 국민 혹은 공동체 집단의 '높은 감성'은 디자인 개발과 문화 콘텐츠 생산을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술관의 기능과 사회적 이미지의 미적 기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Rp' Institute의 전하현 글)